

제 2 권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한
기본 요소

위트니스 리 &
워치만 니

제2권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한
기본 요소

위트니스 리 & 위치만 니

© 2004 Korea Gospel Book Room

모든 권리는 본사 소유입니다. 본 출판사의 명기된 허락 없이는 이 책의 어떤 부분도 복사, 녹음, 정보 저장 및 검색 체계를 포함하여 도안, 전자, 기계상의 어떤 형태나 수단으로 재생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무료 배포를 위한 초판 1쇄 / 2004년 3월 25일

ISBN 89-8478-206-8 04230

무료 배포처

레마코리아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437-1

Originally Published by
Living Stream Ministry, Anaheim, California U. S. A.
Korean Copyright © 2004 Korea Gospel Book Room,
Seoul, Korea. All rights reserved.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목 차

서문 · 5

제1장 주님과과의 시간 · 7

제2장 주님을 만지는 간단한 길 · 15

제3장 깊은 생활 · 23

주님의 두 종에 관하여 · 31

서 문

이 책은 그리스도인 생활을 위한 기본 요소들을 제시하는 세 편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 가운데 제1장 “주님과의 시간”과 제2장 “주님을 만지는 간단한 길”은 위트니스 리의 저서에서, 제3장 “깊은 생활”은 워치만의 저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제 1 장 주님과의 시간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는 기도에 관한 그의 책에서, 어떤 교역자 집회에서 의장(議長)이 던진 한 가지 질문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매일 삼십 분씩 기도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전체 회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의장이 다시, 매일 십오 분씩 기도하는 분은 손을 들어 달라고 하자, 반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오 분씩 기도하는 분은 손을 들어 달라고 말했을 때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은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매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도 일정한 시간을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데 보내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는 음식을 먹음으로 영양분을 얻는 데 매일 얼마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음식을 먹음으로 영적 영양분을 얻는 데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찾고 연구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누리고 영적인 영양분을 얻는 길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와 이 하나님을 누리고 먹고 영적인 영양분을 얻기 위해 매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체험과 간증을 통해

볼 때, 우리들이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에게서 힘을 얻으려면 매일 적어도 삼십 분 정도는 주님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십 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당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삼십 분도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는 적어도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삼십 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은 아침입니다.

그 삼십 분 동안 우리는 지식이나 메시지나 어떤 활동이나 일 등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임재에만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체험입니다. 적어도 매일 삼십 분 동안은 생각을 많이 사용하지 말고 단순히 영을 사용해서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매일 삼십 분의 시간도 채 보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원리입니다. 매일 먹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일정 기간 우리가 이렇게 실행한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큰 변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깊어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상태는 성경을 연구하거나 가르침이나 권면을 받아서 변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을 접촉함으로써만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여 주님과 이러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늦잠 자기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워치만 니(Watchman Nee)는 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을 택할 것인가, 잠을 택할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싸움이 매일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매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양육과 누림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나아와야 할까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 읽기와 기도를 섞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읽기와 기도, 기도와 말씀 읽기를 함께 섞음으로써 주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로 읽기'라는 새로운 용

어를 사용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먼저는, 주님께 짧은 기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읽은 것에 대해 주님께 말하십시오. 너무 많은 구절을 읽은 후에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반응하십시오. 긴 문장의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이것저것을 해 달라는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이 읽은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가치 있는 기도, 주님을 접촉하는 기도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삼십 분은 주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시간이 아닌, 주님과 교통하며 그분을 누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주님은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것저것을 해 달라고 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아이야, 네가 나에게 그 모든 것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내가 그것을 책임질 것이다. 너는 다만 나를 누려야 한다.”

신약에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마 4:4).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영적 양식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세 가지 사례를 보여 줍니다. 첫째 사람은 예레미야로서, 그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렘 15:16)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관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만약 그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을 배우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말씀을 ‘먹으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자신 안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소화하여 자신의 일부분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절에서 예레미야는 또한,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먹은 후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기쁨은 내적인 체험의 결과이며, 즐거움은 그것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존재 안으로 흡수된 후에는 우리 안에서 기쁨이 되고 밖으로는 즐거움이 됩니다.

이와 동일한 사상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수많은 다른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시 119:103)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누릴 만한 것이며, 심지어 우리 입에 꿀보다 더 달고 우리를 더 즐겁게 합니다. 이 모든 구절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만 배울 뿐 아니라 더욱 맛보고 먹고 누리고 소화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을 볼 때, 말씀을 먹는 것은 곧 주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 언급된 ‘신령한 젖’은 헬라이어 원문에 따르면 ‘말씀의 젖’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는 말씀을 먹는 것이 나오고, 3절에는 주님을 맛보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먹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누리게 되고 영적인 양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구절은 디모데전서 4장 6절 후반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 ...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마 여러분은 수년 동안 기독교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양육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을 주목해 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양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다만 말씀의 문자(文字)를 배우기만 하지 않고 말씀으로 양

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식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말씀의 풍성함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둥니까? 수년 동안, 우리들은 무언가를 알고 배우고 이해하는 데 우리의 관심을 쏟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관념에 따르면, 성경은 일종의 가르침이며 교리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언가를 이해하고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탁월한 이해력(理解力)과 사고력(思考力)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는 잊어버려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이해력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먼 이가 되고 심지어 바보가 되어,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와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낡은 전통적인 방법은 잊어버리십시오!

만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기도로 읽는지 모른다면, 아마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실행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해야 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참으로 좋습니다. … 당신은 저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 그때 갑자기 우리가 곧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저는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 주여, 여행 중에 제게 긍휼을 베푸소서. … 자동차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머뭇거린 후에 우리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베트남에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 주여, 그를 기억하십시오. … 베트남에 있는 제임스를 기억하십시오. … 그리고 서독에 있는 탐 … 주여, 탐이 거기에 있습니다. … 그에게는 당신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기도를 통해 참된 양육을 받습니까? 그들 안에는 기쁨이, 밖에는 즐거움이 가득하도록 해 주는 무언가를 그들이 얻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올바른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성경 앞에 나아와서 말씀을 기도

로 읽으십시오. 눈을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 주목하며 기도하십시오. 성경 육십육 권 어디에서도 눈을 감은 채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요 17:1) 하고 기도하셨다는 구절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보셨습니다. 우리는 교리에 관해 논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반드시 눈을 감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태초에 …”라고 인쇄된 말씀만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주목하고,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 주여! ‘태초에!’ 주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저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태초에!’ 할렐루야! ‘태초에!’ 오, 주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단순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또 다른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아멘. ‘이제’ 오, 주여! ‘이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에는 어떤 문장을 지어내거나 기도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기도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은 성경 말씀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결국 여러분은 온 성경이 기도의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만이 기도가 아니라, 온 성경이 기도입니다. 성경의 어떤 장, 어떤 절, 어떤 단어이든지 그 부분을 기도로 읽어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삼십 분 동안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기도로 읽는다면, 여러분은 빛 비춤과 적서짐과 양분과 신선함과 강함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삼십 분을 통해, 여러분은 온종일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영적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말씀의 어느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전히 양육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딤후 3:16).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은 헬라이어 원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단지 배우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생명의 책이지, 지식의 책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책은 살아 계신 영의 신성한 체현(體現)이며, 이 영은 생명이십니다. 올바른 방법은 다만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기도로 읽음으로 말씀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가 이것이 옳은 길임을 증명해 왔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혁신되었습니다. 닷새 동안만 아침마다 이렇게 해 본다면 여러분도 변할 것입니다. 성경에 관한 여러분의 모든 관념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계속 실행한다면 여러분은 살아 계신 영을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과 교훈이 아니라 더 많은 양육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몸을 양육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의 누림이 되실 길을 찾고 계시며,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은 주님께 그 길을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심지어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시어 우리의 조성이 될 것입니다. 교훈이나 이론이나 지식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이러한 정도로 조성해 넣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이러한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말씀을 기도로 읽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는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제 2 장 주님을 만지는 간단한 길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 하여”(빌 3:10).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빌 1:21).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골 3:4). 이러한 구절들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실재와 중심이 다만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한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관해 연구하거나,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거나, 그분을 섬기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님의 긍휼로 인하여 매일 실질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만지고 체험하는 데에 이르러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으신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언급된 ‘더욱’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더욱 전진된 무언가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처음 구원받은 체험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더욱’ 구원을 얻는 체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체험은 온전히 그리스도께 중심을 둔 생활, 곧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지고 누리는 생활의 실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구속을 성취하심

오늘날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고 생생하게 접촉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었다고 말합니다(요 1:1). 어느 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거하셨고(요 1:14), 모든 사람을 위해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로 인해 우리가 구속을 받고(엡 1:7)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어 삼십삼 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멈추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의 체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죄 사함까지는 누릴 수 있겠지만, 그분의 생명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매일, 실제적으로 그분을 만지고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더욱' 그분을 체험하도록 무엇을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신 것이 전부일까요? 그것이 끝일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후에 '더욱' 무언가가 있습니다!

생명 주는 영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그분이 지금은 그들 가운데 있으나 앞으로는 그들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4:16-20).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서 다만 죽고 장사되신 것이 전부라면,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들어갈 수 없으셨을 것이고, 오늘날도 그분의 백성들 안에 들어갈 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장사되신 후 삼 일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오늘날 어떤 형태로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영이십니다. "마지막 아담(그리스도)은 살려 주는(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고전 15:45).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직후, 문이 닫힌 방에 있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영이 아니셨다면 결코 이렇게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요 20:22)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들 밖에, 그들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이 아니셨다면 제자들 안에 들어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主)는 영이시니”(고후 3:17).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 안에는 생명 주는 영이 거하시며, 이 영은 그들의 풍성한 공급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이 되시어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유용하고 편리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쉽게 접촉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더욱 그의 생명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주님을 부름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구속(救贖)을 이루시고, 영이 되시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는 이러한 사실들은 참으로 놀랍고도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만지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간단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주시고 공급하시는 그분을 접촉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 구절이 처음 구원받을 때만 적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자아와 약함과 그 밖의 부정적인 것들에서 매일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양육하고 강건하게 하는 주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아 범사에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는 길은 다만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리스

도인의 생활을 하라고 강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믿는 이들에게 실재가 되어야 하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믿는 이라는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初代) 그리스도인들의 표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4절에서 바울이, 주님께 회심하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도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각처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단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매일, 매 시간,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 부르기를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속에서부터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처럼 객관적인 방식으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불러야 합니다(딤후 4:22). 깊은 속에서부터 그분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흐름과 교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요 4:23-24). 생명을 공급하고 항상 지속되는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볼 때 진정한 예배란 집회에 참석하여 어떤 규율이나 형식이나 예식이나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깊은 속에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진리와 실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매일 그분의 아들을 접촉하고 아들과 교통하는 이 진정한 예배에 참여하고 이 예배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거나

교실에 있거나 차를 운전하거나 친구와 대화하거나 혹은 그리스도인 모임에 있거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또다시 주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영 안에서 진정으로 그분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이 진정한 예배 가운데 그분을 접촉하는 매우 실제적이고 단순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예를 통해, 우리가 다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경배할 때 그분을 접촉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우리는 “한 문둥병자가 나아와 절하고(경배하고) 가로되 주여 …”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5절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닥치든지 우리는 다만 “오, 주여! 오, 주여!” 하고 기도함으로 그분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 침체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다만 “오,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호흡함으로 주님을 실제적으로 접촉하고 그분과 교통하여 자아와 죄와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속에서부터 주님께 이렇게 외칠 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내적 느낌이 있게 되고, 우리 안에 흐르고 움직이는 그분의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의 기자(記者)들이 “오, 주여!” 하고 주님께 기도한 것을 백팔십 번 이상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시 119:145)라고 말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시 116:13)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간단하고 실제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방법으로 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내적인 만족과 즐거움이신 그리스도를 만지고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은 진정한 예배의 또 다른 예를 보여 줍니다. “또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아멘’이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속에서부터 “아멘!”이라고 외칠 때, 우리는 “오, 주여! 오, 주여!” 하고 부를 때와 똑같이 그리스도를 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은 ‘주님’ 이시요, 또한 ‘아멘’ 이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6장 36절을 보면 “아멘!” 하고 부르는 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라도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우리가 깊은 속에서부터 “아멘!” 하고 외치는 것은 주님을 부르고 그분을 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하라”,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으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 하여 말했습니다. 시편의 마지막 다섯 편은 이 하늘에 속한 경배의 말로 시작하고 끝맺습니다. 우리는 또 요한계시록 19장 1절, 3절, 4절, 6절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이 단어가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종일 깊은 속에서부터 “오,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여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고, 우리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은 영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인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공기와 같이 누리기 쉽고 신선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 주여!”, “아멘!” 또는 “할렐루야!” 하고 외칠 때 우리는 모든 풍성을 공급하는, 생명 주는 호흡으로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으로서 이 네 마디의 말을 호흡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은 속에서부터 다만, “오, 주여! 아멘, 할렐루야!”를 호흡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자신의 달콤함과 실재를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생명이 진실로 구원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간순

간, “오, 주여! 아멘, 할렐루야!”를 부름으로써, 주님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 안으로 이끌리고, 그분의 즉각적인 구원을 체험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 3장

깊은 생활

성경 : 시 42:7, 막 4:5-6, 사 39:1-6, 고후 12:1-4, 행 5:1-5

시편 42편 7절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는 말은 “깊은 곳과 깊은 곳이 서로 부른다”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깊은 곳의 외침만이 깊은 곳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얇은 것은 결코 깊은 것을 만질 수 없고 내면적인 부분들을 만질 수 없습니다. 깊은 곳은 오직 깊은 곳에만 반응할 따름입니다.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깊은 곳을 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들의 깊은 곳을 만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 나온 것에만 깊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깊이 만지는 것은 말씀 전하는 사람의 깊은 속에서 나온 것뿐입니다. 어떤 것이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받은 도움은 얇은 것에 불과하고 내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곳의 중요성을 보아야 합니다.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의 깊은 곳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깊은 속에서 유익과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깊은 속에서 어떤 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려면 반드시 우리의 깊은 속에서부터 무엇이 나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다른 사람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깊은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즐겁게 하고 흥분하게 할 수 있

을지라도 사람의 깊은 곳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깊은 곳만이 깊은 곳을 부릅니다. 피상적인 알팍한 표현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깊은 곳을 만질 수 없습니다.

뿌리 있는 생활

말씀을 전하거나 들을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안에 들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뿌려졌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졌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뿌려졌고, 또 더러는 좋은 밭에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네 종류의 다른 태도를 보여 줍니다. 주 예수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태 중의 하나가 돌밭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돌밭은 표면에는 흙이 조금 있지만 그 바로 밑에는 돌투성이입니다. 이러한 밭에 뿌려진 씨는 매우 빨리 자라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즉시 말라 버립니다.

뿌리란 무엇입니까? 뿌리는 흙 밑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잎이란 무엇입니까? 잎은 땅 위로 자라 나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뿌리는 감추어진 생활인 반면에 잎은 나타난 생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보이는 생활은 있으나 보이지 않는 은밀한 생활이 매우 결핍된 데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감추어진 깊은 속의 생활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여러 해 동안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에서 감추어진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생활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은 외적인 일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밖의 좋은 일과 행위를 주의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밖의 좋은 행위 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만일 여러분의 모든 영적 생활과 체험이 전부 드러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미덕을 사람들 앞에 다 보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것이 밑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체험이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위로 자란 것이지, 밑으로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잎만 있고 뿌리가 없는 사람이요, 흙이 얇은 사람입니다.

깊은 체험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 하노니”(고후 12:1)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을 쓰는 것이 자신에게는 유익이 없음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 것은 부득불 말한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상과 계시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체험을 하자마자 즉시 나팔을 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의 이상과 계시를 말하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사도 직분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를 흔드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의 모든 계시를 드러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이 사람은 바울 자신입니다.) 십사 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고후 12:2)고 말했습니다. 그는 십사 년이 지나도록 이 체험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칠 년 동안 보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사 년 동안 그의 체험을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십사 년 동안 바울의 이러한 체험을 알지 못했습니다. 십사 년 동안 사도들 중에 아무도 바울의 이러한 체험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깊은 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바울이여, 십사 년 전에 당신이 체험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곧 셋째 하늘에서 체험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일의 전말을 들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고후 12:3-4).

오늘날까지도 바울의 이 체험은 뿌리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체험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뿌리의 문제는 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바울의 사역이 있으려면 먼저 바울의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외적인 생활을 가지려면 먼저 바울의 속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나타난 능력을 가지려면 바울의 은밀한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문제는 어떤 영적인 것이나 특별한 체험을 드러내지 않은 채 보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조그마한 체험만 있어도 곧 사방에 퍼뜨립니다. 그들은 감추어진 어떤 부분도 없이 사람들 앞에 생활합니다. 그들에게는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의 체험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것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얕은 생활

이사야 39장은,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글과 선물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보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히스기야가 사자로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2절)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을 과시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기이하게 나았을 때 거만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에게서 아하스의 일영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 도를 물러가게”(사 38:8) 한 기이한 징조를 받고 치료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하며 자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쭐대면서 바벨론 왕의 사자에게 자신의 모든 궁중 보물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십자가의 다름을 통과하지 못하였고, 그의 타고난 생명이 다름받지 않은 것을 말해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모든 뿌리가 밖으로 드러났음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뿌리, 곧 보이지 않는 생활이 없

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야는 그에게 “왕은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 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39:5-6)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무엇을 드러내 보인 만큼이 바로 우리 자신이 손실을 입게 되는 정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사람들 앞에 전시된 만큼 여러분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엄중한 일이므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 자기의 체험을 말하기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한번 말하면 마음이 시원하게 될 정도로 말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궁중 보물을 사람들에게 보인 것과 같습니다. 전에 어떤 형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병들었다가 나은 후에 간증을 합니다. 나도 한번 죽음에는 이르지 않는 병을 앓다가 하나님의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간증 집회에서 할 말이 있게 될 테니까요.” 이 형제는 무엇 때문에 병 고침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간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그러한 체험을 추구한 것은 할 말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오! 이렇게 얇은 생활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손실을 입게 합니다. 또 그것은 영적 성장의 가능성을 없애 버립니다.

간증은 하되 자신은 드러내지 않음

그렇다면 우리는 간증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바울도 간증을 했고, 역대로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간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증하는 것과 자기의 체험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간증을 해야 합니까? 말하는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자신의 음성 듣기를 사랑하는 것은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갈망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말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식사 후에 차 마시며 한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한담할 때 영적인 풍성들이 새어 나갑니다. 주님의 인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마땅히 간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간증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방면에서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도 간증을 했지만, 14년 전의 체험을 사람들에게 가볍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14년 동안 자신의 체험을 감추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14년 전의 체험을 말할 때에도 전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계시를 얻었다는 것과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만을 언급하였을 뿐 그가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삼층천은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은금과 향료와 보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금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은이 십자가의 구속에서 나온 것이며, 향료는 우리가 상처를 받음으로 흘러나온 것임을 알아야 하고, 왕국에 관한 모든 것이 보배이며, 하나님과 주님에게서 얻은 주님의 모든 일이 우리의 무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교리나 성경의 가르침이나 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통을 통해 얻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왕래하고 하나님의 다름을 받음으로 얻은 것들을 임의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증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많은 영적인 체험이 감추어질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많은 영적인 체험들이 감추어져야 하고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님도 때때로 간증을 하셨지만 결코 수다스럽지 않으셨습니다. 간증하는 것과 수다스러운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분은 병자를 치료하신 후 남에게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뿐 아니라 여러 번 분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숙에게 고하라”(막 5:19)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말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일을 소식거리 전하듯이 남에게 말한다면 자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뿌리가 없다고 합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어떤 보물도 없는 것이요, 감추어진 생활이나 체험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체험 가운데 어떤 것들은 덮여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모든 것을 드러낸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만일 사람 앞에 우리의 모든 보물들을 내보인다면 포로되어 노략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망과 드러남은 함께합니다. 영적 메마름과 드러남도 역시 함께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간증을 해야 하더라도 바울처럼 ‘무익하나마’ 어떤 필요 때문에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고후 12:1)라고 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 드러날 때 다가옵니다. 어떤 종류의 드러남이든지 우리에게 손실을 줍니다. 병을 치료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간증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많은 간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 다시 병들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일단 간증한 후에는 같은 방면에서 다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뿌리를 덮는 사람을 덮어 주시지만 뿌리를 드러내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으시므로 그들이 도리어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라고 하시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감추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추는 그것을 보호하시며, 또한 그것은 여러분의 누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훈과 은혜로 여러분의 손을 통해 이루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광고하거나 선전하는 재료가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낼 때 여러분의 봉사에서 즉시 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자신을 나타낸 그만큼 잃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었을 때 즉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삼하 24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드러냄에서 구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추어 둔 모든 것을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드러내시도록 우리 속에서 움직이셔야 우리가 비로소 그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형제와

여러분의 체험을 함께 나누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감히 그것을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억누른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율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율은 곧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율을 억누르면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어야 하며, 생명을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일만을 말하고, 자신을 나타낸다면 여러분은 원수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들 가운데 있는 생명의 흐름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면으로 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얻은 감추어진 부분들과 남들이 모르는 많은 체험들이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뿌리도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점점 깊은 곳을 향해 뿌리를 뺏어 내린다면 결국 '깊은 곳과 깊은 곳이 서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속생명 깊은 곳으로부터 풍성을 내놓을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깊이 있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속존재가 만져지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도움을 얻게 되고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넘어선 무엇이 거기에 있음을 알 것입니다. 깊은 곳이 깊은 곳을 만질 때, 깊은 곳은 깊은 곳에 반응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생명에 깊이가 없다면 여러분의 표면적인 봉사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단지 외면적인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직 '깊은 곳만이 깊은 곳을 부릅니다'.

주님의 두 중에 관하여

저희는 워치만 니와 그의 동역자 워트니스 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전한 말씀이 80년 이상 전세계, 육대주의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어 왔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저서는 많은 언어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저희에게 워치만 니와 워트니스 리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기에 이 두 형제님의 삶과 봉사를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워치만 니

워치만 니는 17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전세계적으로 추구하는 믿는 이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인 생명과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의 관계에 대한 그의 저서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동일하게 교회 생활의 실행과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강조한 그의 사역의 또 다른 비중 있는 방면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 모두에 관하여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워치만 니는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하나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계시를 열어 보여 주기 위해 사용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본토에서 주님을 위해 20년 동안 옥고를 치른 후에 주 예수의 충성스런 증인으로서 1972년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위트니스 리

위트니스 리는 위치만 니와 가장 가까웠고 깊은 신뢰를 받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1925년, 19세 때에 역동적으로 거듭남을 체험했고 자신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위트니스 리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처음 7년 동안 그는 플리머스 형제회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그는 위치만 니를 만났고, 그 이후로 1949년까지 17년 동안 중국에서 니 형제님의 동역자로 수고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중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는 일본군에 의해 투옥되어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이유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두 종의 사역과 일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큰 부흥을 가져와 중국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었고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49년 위치만 니는, 중국에서 주님을 섬기던 그의 모든 동역자들을 함께 모은 자리에서 위트니스 리에게 중국 대륙 밖의 대만 섬에서 사역을 계속하라는 위임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대만과 동남아시아에 백 개 이상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1960년대 초기에 위트니스 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위트니스 리는 35년 이상 주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1974년부터 1997년 주님 품으로 갈 때까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수 년 동안의 수고의 열매로서 300권 이상의 책들을 출판했습니다.

위트니스 리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자 하는,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성경 전체의 신성한 계시를 열어 보여 주었고, 이것을 통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아는 길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사랑 안에서 몸이 스스로 건축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직 이 건축이 완성될 때 주님의 목적이 완성되고 그분의 마음이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형제님의 사역의 주된 특징은 그들이 성경의 순수한 말씀에 따

라 진리를 가르쳤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위치만 나와 위트니스 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1. 성경은 완전하고 신성한 계시로서 무오(無誤)하며, 하나님께서 호혜 내신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다.

2. 하나님은 유일하신 삼일 하나님—아버지, 아들, 영—이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시에 함께 존재하시고 상호 내재하신다.

3.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의 구속자와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육체가 되셔서 예수라 불리는 한 사람이 되셨다.

4.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삼십삼 년 반을 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셨다.

5.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다.

6. 예수 그리스도는 삼 일 동안 매장되신 후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사셨고, 사십 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분을 모든 것의 주가 되게 하셨다.

7. 그리스도는 승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분께서 선택하신 지체들을 한 몸 안으로 침례 주셨다. 오늘날 이 영은 이 땅에서 운행하시며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선민 안으로 신성한 생명을 분배하심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신다.

8. 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믿는 이들을 휴거시키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소유하시며,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9. 이기는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며,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신성한 축복에 영원토록 참여할 것이다.